Fund Analyst 김후정
02-3770-3605 / hujung.kim@yuantakorea.com

초단기투자와 초장기투자의 시간

1. High Risk, High Return

-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반기 국내외 주식펀드의 성과 우수
- 국내주식 중에서는 섹터 펀드 성과 우수

2. ETF(기타), 원자재관련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로 자금유입

- 상반기에는 금융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원유, 금 등 원자재 펀드로 자금 유입 규모 컸음
- 최근 1개월 동안은 원유관련 펀드에서는 1조원 이상 자금이 빠져나갔고, 은과 금 관련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짐. KOSPI와 KOSDAQ의 인버스ETF로도 자금 유입

3. 은퇴관련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이어짐

-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은퇴자산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관련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하게 이어짐
- 올해에도 라이프사이클(TDF포함)펀드와 퇴직연금(공모) 등으로는 5,844억원과 4,129억원의 설정액 순증
- 중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관심도 필요

1. High Risk, High Return

프랑스에서는 언덕 너머에 있는 실루엣이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황혼의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시간이 지나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되지만, 판단을 해야할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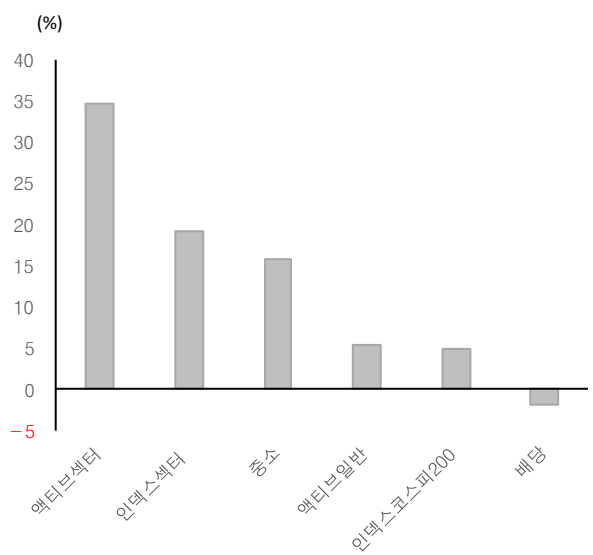
돌이켜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상황이 '개와 늑대의 시간'과 유사했다. 경제 회복이 얼마나 빨리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때 주식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한 투자자들은 수익률의 보답을 받았다.

연초이후 해외주식 유형과 국내주식 유형은 각각 9.7%와 7.7%의 성과를 시현하였다.

연초 이후 국내주식형은 액티브와 인덱스 모두 섹터유형의 성과가 가장 우수하였다. 스타일 중에서는 중소형주펀드 성과는 우수했지만, 배당주펀드 성과는 부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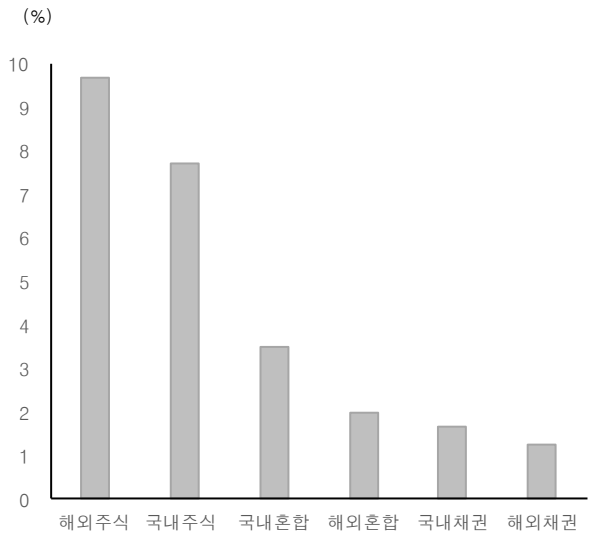
연초 이후 해외주식형 중에서는 소재섹터, 소비재섹터, 중국, IT섹터 등의 성과가 우수하였다. 반면, 브라질과 금융섹터,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은 연초 이후로 손실 상태이다.

[챠트1] 연초이후 국내주식 유형 중에서는 섹터펀드 성과 우수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 월 6 일 영업일 기준

[챠트2] 연초 이후 주식펀드 성과 우수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 월 6 일 영업일 기준

2. ETF(기타), 원자재관련 펀드와 라이프사이클펀드로 자금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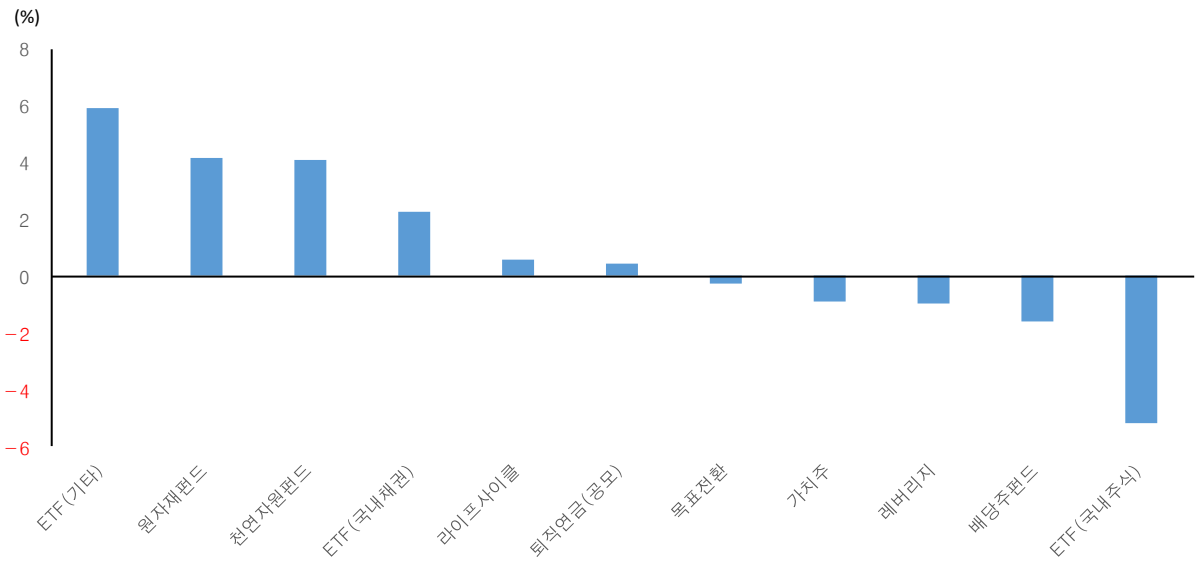
연초 이후 가장 많은 자금이 들어온 유형은 원유, 인버스. 레버리지 등이 포함된 ETF(기타)였다. 뒤를 이어 WIT원유, 금, 은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원자재펀드와 천연자원펀드로 자금 유입 규모가 컸다.

안전자산 선호로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국내채권 ETF로도 자금 유입이 많이 되었다. 그 뒤를 이어 자금 유입규모가 큰 유형이 TDF가 포함된 라이프사이클 유형과 퇴직연금(공모) 유형이다.

국내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와 해외의 개별 주식과 함께 변동성 구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형으로 투자자금이 모이고 있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최근 3개월간 '삼성KODEX인버스'와 '삼성KODEX코스닥150인버스'로는 각각 3650억원과 2,990억원의 설정액이 순증하였다.

최근 1개월 동안은 원유관련 펀드에서는 1조원 이상 자금이 빠져나갔고, 은과 금 관련 펀드로는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KOSPI와 KOSDAQ의 인버스ETF로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차트3] 연초이후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투자 테마는 ETF(기타), 원자재관련 펀드와 라이프라이클(TDF)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테마로 각 유형은 중복될 수 있음, 8 월 6 일 영업일 기준

3. 은퇴관련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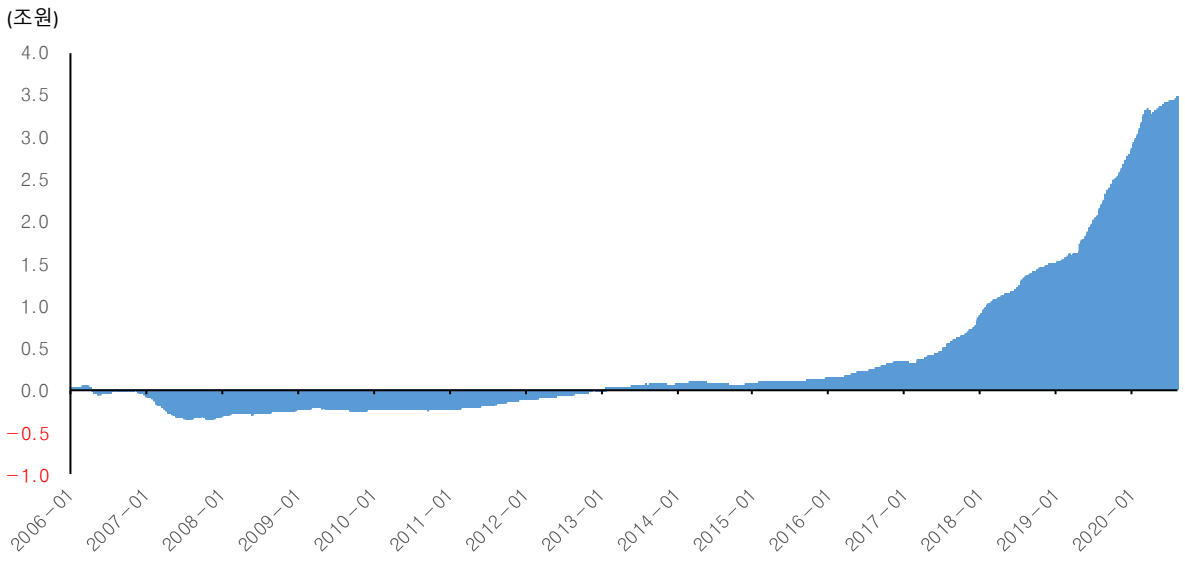
라이프사이클펀드(TDF포함)와 퇴직연금은 은퇴를 위한 자산으로 금융상품 중 투자 기간이 가장 길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은퇴자산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으며, 2016년 이후 관련 금융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도 라이프사이클(TDF포함)펀드와 퇴직연금(공모) 등으로는 5,844억원과 4,129억원의 설정액이 순증하였다. 국내주식액티브펀드와 국내주식인덱스펀드에서 각각 2조 4,647억원과 9조 9,392억원이 빠져나간 것과는 비교되는 수치이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자산의 필요성이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은퇴자산 금융 중에서는 연령과 은퇴시점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정해주는 TDF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에는 변동성과 은퇴자산에 대해서는 투자했지만, 중장기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했다.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챠트4] 라이프사이클(TDF)펀드 누적순자금유입규모는 2017년부터 크게 증가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